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집값 상승으로 '집 부자 현금 가난뱅이' 현실화

MA 높은 주택값으로 타주 이주 매년 1100%증가 재산보유세 상승으로 시니어 등에 되려 부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년간의 집값상승이 자산 증식의 측면에서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뜻하지 않는 부작용도 속출시키고 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거나 소득이 적은 단독주택 소유 시니어들에게는 높은 재산보유세(property tax)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 집값은 전국적으로 50%가 상승했다. AP는 일부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갑작스런 세금 상승으로 인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로 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도 예외가 아니다. 그레이터보스

턴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5월 \$950,500 였다. 2024년 주 평균 단독주택 재산보유세는 \$7400로 \$5,993이었던 2019년에 비해 약 19% 상승했다.

매사추세츠 재산평가사 협회 캐슬린 코스테오 디렉터는 “많은 나이든 거주자들이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밝혔다.

주정부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킴 드리스콜 부주지사는 “수십년 전에 집을 구입했던 시니어들은 집값이 이 정도로 상승할 줄 예상치 못했으며 치솟는 재산보유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보스톤글로브에게 밝혔다.

▶▶7면으로 계속



집값상승은 주택 보유자들에게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주 전체적인 삶의 생태계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매사추세츠 보스톤교외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의 하나인 뉴턴의 주택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설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히 보상. 전문적인 검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어워딩 수상 경력 보유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 아브라
함, 편집부 = 오늘은 보스톤 한미노
인회(회장 한순용) 주관으로 랍스
터 먹거리 투어 가는 날이다.

화창한 여름 맑은 하늘에 뭉개 구름이 점점이 떠있는 기분 좋은 하루, 그리고 즐거운 먹거리 여행의 시작이다.

장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캐비지 아일랜드(Cabbage Island Lobster & Clambakes). 즐거운 여행에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오전 9시 북부보스턴한인교회 주차장에 모여 들었다. 이미 많은 회원들의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주고 받기 바빴다.

올해는 본회의 넉넉한 기금 덕분에
에 대형 리무진 버스를 임대했다.
오늘 참석인원은 50명으로 리무진
버스가 도착하자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출발했다. 출발 시간은 9시 12
분.

출발해 얼마가 지나자 뒷좌석에
자리한 노래팀에서 노래가 시작되
었다. 반주는 주종옥 부회장님이 한

상 준비하시는 휴대용 확성기와 마이크 장치로 기타와 하모니카 반주가 시작되면서 노래가 줄줄이 이어 나왔다.

마치 주크박스의 노래처럼 한국
동요에서부터 각종 유행가, 그리고
가곡까지 가지가지 노래가 이어졌
다. 과연 그 많은 노래의 레퍼토리
가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쉬지도 않는다. 삶의 연륜에서 일까
? 하여간 기운도 왕성하다.

유명가수가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일류 가수를 뺄 정도로. 모두들의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차창 밖에는 푸르른 강과 산야의
멋진 넓은 풍경이 전개되어 이를 감
상하기도 했다.

뉴햄프셔 휴게소에서 김인숙 부회장을 모시고, 관광 리무진은 2시간 30여분 더 운행하여 어느덧 목적지인 부스베이 항구(Boothbay Harbor, ME 04538)에 도착했다. 다시 유럽선 버니 엘리스호에 올라타 섬까지는 한시간 가량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다.

시원하고 푸르른 대서양 바다와

그림처럼 예쁜 섬의 예쁜 집들을 보면서, 선장님의 해설을 곁들여서 감상하며, 1시간만인 13시 20분 캐비지 아일랜드(Cabbage Island Lobster & Clambakes)에 도착했다.

모두 유럽선에서 내려 예약했던
자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모두들
랩스터 요리 장면을 촬영하기가 바
빤다. 배식 기적이 올리자 우리는
미리 나눠준 식권을 들고 줄을 서 순
서를 기다리며 식사를 받아오기 시
작했다.

지난 주에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던 잭(Jack)아저씨 내외와 친구 내외는 개인 출발로 이곳 식사에 참여하여 서로 위로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랩스터를 먹으며 우리들은 이야
기를 꽃피웠고 식사가 끝나자 서둘
러 떠날 준비를 했다. 15시 37분에
승선하여 배가 섬을 출발했으며 16
시 38분에 다시 부스베이 항구
(Boothbay Harbor)에 도착했다. 곧
리무진 버스에 올라 항구를 출발했
다.

귀가 길에 우리들은 마치 학창시



절로 돌아간 듯 많은 대화를 나누고
 ,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뒷좌석에서는 또다시 노래방 기계
 처럼 한국 동요, 가요곡, 가곡 등 도
 착할 때 까지 쉬지도 않고 노랫소리
 가 끊이지 않았다. 거기다가 도착지
 가 가까워오자 여행 마무리 멘트까

지 하여 모두들을 배꼽잡고 웃게 했다.

우리는 이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
참 뜻깊은 행사라고 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과 우리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
신 분들에게 감 ▶▶5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SEOUL SOLALGAM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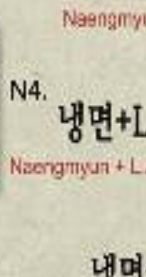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illegible]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연례 야유회 가져



▶▶2면에 이어서

사를 드린다.

이런 즐거운 시간으로 노인들의 그 열정을 끌어내 모두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보며, 불평 없이 즐겼다.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10년이 젊어지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

19시 50분에 목적지 북부보스턴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 아쉬움을 남기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각자 집으로 향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준비와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순용 회장님과 스태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백문성 동창, 편집부=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는 지난 6월 15일 토요일 뉴튼 어번데일 파크(Auburn-dale Park, Newton)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연례 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회 회원인 20여 젊은 동문을 포함, 60여 동문들과 장학생 10명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교가제창으로 시작된 정기 총회 1부에서는 정기총회 안건 인준,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틀 전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 변동없이 임원과 최진민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인준했다. 동문들은 보기 드문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여러 동문들이 한식 뷔페를 준비하는 동안 김광수 장학위원장이 장학사업을 소개하고 올해 선정된 10명의 장학생에게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장학생 후원 사업은 3년전 김광수 장학 위원장 이하 이현구, 신진우위원의 활발한 모금 활동으로 많은 추가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수혜자를 서울대에 한하지 않고 뉴잉글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계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40-50여명



의 신청자 중 10여명 정도 선정해 장학금(\$2,000-\$3,000)을 지원하고있다.

올해는 42명이 지원자 가운데 10명(고등학생 1명, 대학생 6명, 대학원생 3명)을 선정했다. 김광수 위원장은 “장학생들 중 각 분야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을 빛낼 분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 며, “또한 장학 사업은 젊은 동문과 선배 동문간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의 보스턴 프로젝트 특화 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 병원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등, 특화 연구소 보직자들이 이번 6월에 보스톤을 방문해, 동문회 소속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등, 네트워킹, 한미간 공동사업화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번 야유회에는 윤순호 교수(영상의학과), 장윤혁 교수(신경과)가 참여하여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기다리는 점심식사는 불고기 바베큐, 푸짐하고 다양한 한식 뷔페, 과일 떡 등 후식이 준비됐다.

장학생들은 점심 후 마련된 수상소감 발표를 통해 장학금의 고마움과 함께 금전적인 것을 넘어 수상자들의 자랑이었고, 좀더 긍정적으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다잡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그동안 수고한 동문들에게 뉴잉글랜드 동창회 공로/감사장 증정했다.

2024년도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예지(고교 졸업반), 박민철(대학 졸업반), 황정민(대학 3학년), 김찬호(대학 3학년), 민예찬(대학 3학년), 문상현(대학 3학년), 조용인(대학 3학년), 김윤혜(박사과정), 채민진(박사과정), 임주광(박사과정)

문의: 21대 New England 회장 최진민 <jinchoi52@g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기대작 <탈주> 보스톤서 이번 주 5일 개봉

AMC 보스톤커먼 등에서 이번주 개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한국영화계의 부진을 깰 기대작인 '탈주(Escape)'가 7월 5일 미주 개봉에 맞춰 보스톤에서도 상영된다.

미국 배급사인 웰고USA에 따르면 영화 '탈주'는 다운타운 소재 AMC보스톤커먼 19와 AMC코즈웨이 13 두곳에서 개봉한다. 웰고USA 애니 워커 대표는 "여러 상영관을 두고 현재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파묘' 이후 다시 보스톤 상영관을 찾게 되는 '탈주(Escape)'는 이제훈, 구교환 주연의 영화로 탈북이라는 소재를 다뤘다. 한겨레는 '새로운 세대의 북한을 보는 방식'이라고 이 영화를 평가했다. 감독, 시나리오 작가, 주연배우들까지 1980년대생이란 점에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상상하고 표현했다고 한다.

'탈주' (감독 이종필)는 북한병사 규남(이제훈)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그를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의 추격전을 큰 줄거리로 두고 있다.

10년 복무 뒤 제대를 앞둔 규남은



깊은 밤마다 소리 없이 뛰면서 남한 귀순을 위한 지도를 만든다. 하지만 규남의 계획을 엿본 동혁이 먼저 탈출을 시도하면서 규남까지 체포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온 보위부 소좌 현상은 어린 시절 알고 지낸 규남을 영웅으로 둔갑시키며 실적을 올리는 데 규남이 탈출을 감행하며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진다.

'한겨레는 왜 탈출이 아닌 탈주일까'라고 질문한다. 이종필 감독은 북한은 소재일 뿐 우리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 욕망을 그린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탈주'라고 정했다고 설명한다.

이 감독은 규남의 대사 "내 갈 길 내가 정했습니다"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란 메시지를 전달하

고자 했다. 좌우 이념에서 자유로운 세대들이 "단순히 귀순병사가 아니라 지역이든, 직장이든 지금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 모든 이의 보편적인 이야기"의 배경으로 북한이 선택됐다.

새로운 세대가 보는 북한은 "비슷한 얼굴, 같은 언어를 쓰지만 외국보다 낯선" 곳이다. 언어는 같지만 나라가 다른 곳은 많으므로 결코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의 삶을 맞댄 같은 언어의 국가는 지구상의 단 한 곳밖에 없다.

영화의 재미는 물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는 영화 '탈주', 이번 주말 보스톤 다운타운 나들이 항목으로 넣을 만 하지 않는가.

bostonkorean@hotmail.com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help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reate the

Art of Hanbok

Award winning photographer Bill Brett of the Boston Globe will photograph Korean culture on the steps of the MFA Boston. Wear your traditional or modern Korean attire. This photograph will be historic and we invite you to be a part of history.

Dates: July 13, 2024
Times: 1pm - 5pm (Discount ticket code available)
Hanbok photo promptly at 3:30 p.m. on steps of MFA Boston
Locati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ssachusetts
Parking: Self-parking - Visit mfa.org for parking info and directions
RSVP: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nc.
@ kacn-ne.org
617-299-0294
newenglandkac@gmail.com
Prizes: For Best Hanbok - Couple, Child, Individual, and Senior

시민협회, 13일 MFA서 <한복포토데이>, 무료 입장도

오후 1시부터 한복입으면 무료 입장권, 베스트 한복사진에 푸짐한 상품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민협회는 보스톤미술관(MFA)과 공동으로 7월13일 오후 1시부터 한복을 입은 참가자에게 무료 입장권을 배부한다.

오후 3시 30분부터 보스톤글로벌의 사진기자이자 상 수상자인 빌 배렛(Bill Brett)과 함께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사진에 찍힌 커플, 어린이, 개인, 시니어들 중, 베스트드레서를 선정해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협회는 여름 방학을 맞은 한인 차세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협회 린다 챔피언 회장은 "우리 한류의 물결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한인 동포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문의는 시민협회 양미아 이사장 (508)728-0832, 이메일 aac-smys@gmail.com)에게 하면 된다.

시간: 오후 1시(무료 입장가능), 오후 3시30분 -오후 5시(사진 촬영)

장소: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과 킹 : Self-Parking-visit mfa.org for 파킹 정보

bostonkorean@hotmail.com

정관장 紅蔘

6년근

KOREAN RED GINSENG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CDC, 보스턴서도 땡기열 환자 올해 50명 발생

매사추세츠 동북부와 일부 지역에서 땡기열 모기 발견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열대 모기로 인해 발병하는 땡기열 환자가 매사추세츠에서도 올해 50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환자 발생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질병이 매해 약 1억에서 4억명 정도를 감염시키지만 동북부에서는 여전히 드문 질병이며 50명의 감염자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감염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땡기열은 지금까지 주에서 서식하는 모기로 인해 전염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매사추세츠 땡기열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0건의 땡기열 환자가 확인됐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0건을 기록해 빠르게 늘고 있다.

땡기열은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다. 고열, 심한 두통, 관절 및 근육 통증, 구토, 눈 뒤의 통증, 림프선 부종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인 경우 쇼크와 내부출혈의 위험성도 있다. 사망 사례는 드물지만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수분섭취와 휴식이 필요하고 심한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땡기열 환자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 질병통제센터는 이 감염의 확산에 대해 주의보를 내리고 병원과 보건 당국 그리고 일반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에는 매사추세츠서도 이 땡

기열을 전파시킬 수 있는 신종 외래 모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땡기 바이러스를 옮기며, 호랑이 모기로 알려진 에데스 알보픽투스(Aedes albopictus, 흰줄숲모기) 모기종이 최근 주 동북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이들은 온난화 과정 중에 북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온타리오까지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기가 있는 경우 땡기열 감염 위험이 존재하며, 땡기열은 물론 지카 바이러스도 옮길 수 있다.

2024년 전반부동안 미국은 2023년보다 2배나 높은 땡기열 환자가 보고됐고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3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현재 땡기열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브라질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방학을 맞아 이 지역을 여행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땡기열을 막는 좋은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밤에 활동하는 모기들과 달리 땡기열 모기는 낮에 활동하므로 모기퇴치제를 뿌리고 밝은 색 긴팔 옷을 입는 것이 모기 방지에 좋다.

hsb@bostonkorea.com



주 보건부, 첫 웨스트나일 및 동부말 뇌염모기 발견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채집된 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부말 뇌염(EEE)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2일 보건부가 올해 처음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됐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EEE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지난 6월 30일 플리머스 카운티의 카버(carver)타운에서 채집된 샘플이었으며 현재까지는 사람이나 동물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6월 25일 노퍽 카운티의 퀸지(Quincy)에서 채집된 샘플이었다.

보건부는 EEE 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카버, 미들보로, 플리머스, 플림턴, 그리고 웨어햄까지 위험수준을 보통으로 격상시켰다.

로비 골드스틴 주보건부 장관은 “매사추세츠 EEE의 대형 감염 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이었으며 이후 아직까지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골드스틴 장관은 “어제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이어 오늘 동부말 뇌염 바이러스 모기까지 발견됐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 퇴치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EE는 드물지만 심각한 질병이며 중증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모기로 인해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 모든 연령대에게 감염을 발생시킨다. 2019년 12명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했으며 2020년에는 5명이 감염됐으며 1명이 사망했다. 이후 인간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단 50대 이상의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없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 열과 플루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드물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hsb@bostonkorea.com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 노조결성은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법무부가 우버와 리프트 등 라이드 공유 회사들과 독립 계약직 또는 직원이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은 다른 문제인 노조결성 권리를 옹호할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라이드공유 운전자들의 노조 조직 허용 관련 주민투표가 만약 옹호할 허용되는 경우 향후 운전자들은 단체 교섭권을 보유하게 되며 임금 인상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직원근로자들의 경우 결성할 수 있는 노조 결성권이 없었다.

지난 6월 말 앤드레아 캠퐸 법무장관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에게 시간당 \$32.50을 최소 임금으로 지급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합의했다. 또한 우버 등은 운전자들에게 1억 75백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임금은 올랐으나 직원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혜택 제공의 의무는 덜도록 한 것이다.

캠퐸 법무장관은 운전자들의 두 번째 주민투표안인 노조결성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록라나 리베라 서비스근로자국제 노조32BJ 지부장 보조는 이번 합의가 근로자들이 노조화로 구축한 “역사적인 첫번째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의를 위한 연합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 11월 라이드공유 운전자들의 노조구성권한에 대한 주민 투표가 부쳐질 경우매사추세츠 주민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것이 나왔다. 많은 응답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 사실 자 몰랐었다.

현재 라이드공유 운전자들의 노조결성의 권리 관련 법안은 주 의회에 상정됐지만 7월 31일 회기 만기 전에 통과가 거의 불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밥스 스토어 폐업 재고떨이 세일

전 매장 폐업, 7월 5일부터 14일까지 30-70% 세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밥스 스토어 (Bob's Stores)가 부도로 인한 폐업 청산 세일에 나선다고 7월 1일 발표했다.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는 밥스 스토어 체인은 매사추세츠에 6개 점, 커네티컷 10개점 뉴햄프셔에서 1개점, 로드아일랜드 1개점 등 총 21개 지역에 점포를 소유했었다.

지난 70여년간 운영해왔던 밥스 스토어는 폐점 세일을 이번 주 금요일인 5일부터 실시하며 모든 물건을 30-50% 할인해 처리한다.

밥스 스토어에서 발행한 선물권 및 크레딧카드는 세일 마감일인 7월 14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음은 뉴잉글랜드에 있는 밥스 스토어 주요 점포 위치다.

매사추세츠
Attleboro: 287 Washington St.
Fitchburg: 146 Whalon St.
Holyoke: 50 Holyoke St. Unit

C242
Middleton: 230 Main St.
Randolph: 59 Mazzeo Drive
Westborough: 168 Milk St.
커네티컷
Ansonia: 409 Main St.
Hamden: 2300 Dixwell Ave.
Manchester: 179 Pavilions Drive
Middletown: 416 East Main St.
Milford: 195 Cherry St.
Newington 172 Kitts Lane
Simsbury: 504 Bushy Hill Road
Southington: 835 Queen St.
Waterbury: 910 Walcott St.
Waterford : 167 Parkway North
뉴햄프셔
Salem: 92 Cluff Crossing
로드아일랜드
Cranston: 1400 Oaklawn Ave.
hsb@bostonkorea.com

MA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 8월부터 시간당 최소 \$32.50

MA 주 라이드헤일링 운전자에 1억 7천 5백만 달러 배상 합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표적인 라이드 공유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해당 업체 운전자들에게 1억 7천 5백만 달러 (\$175 million)를 지급하도록 매사추세츠 주와 합의했다.

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캠퐸의 발표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8월 15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시간당 최소 32.5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단, 이 금액은 픽업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승객을 태우고 있는 시간에만 적용된다. 대기 시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운전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유급 병가 및 사고 보험을 제공하는 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번 합의는 2020년 매사추세츠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래 오랜 법정분쟁 끝에 이뤄졌으며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추진하던 운전자들은 2024년 주민투표안 최종 서명지 제출을 중단한다. 이 소송은 주 노동법

에 따라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1억7천5백만달러의 합의금은 현재와 과거의 라이드셰어 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 "저임금" 문제를 보상하는 데 사용된다. 캠퐸 법무장관은 향후 몇 주내 자격 조건과 청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중은치과, 중은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집값 상승으로 '집부자 현금 가난뱅이' 현실화

▶▶1면에 이어서

프로포지션 2.5(Proposition 2 1/2)

매사추세츠 주는 매해 재산보유세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1980년 주민투표에 따르면 프로포지션 2.5는 각 지자체인 시와 타운이 대형 오버라이드(override) 투표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매년 세금을 2.5%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비록 세율은 2.5%로 고정한다 하더라도 매년 주택값이 인상되는 경우 매년 세금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틸리티, 헬스케어 비용의 상승, 타운 공무원들과의 임금협상 등으로 지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사추세츠 지자체장 협회의 대표 아담 채프딜레인은 지난 봄 많은 타운과 시에서 오버라이드 투표가 이뤄졌던 것을 일례로 들었다.

오버라이드 투표가 제안되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장과 타운 매니저들은 타운에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는 것이 채프딜레인 대표의 말이다.

타주로의 엑소더스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세금이 높아지면 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재산보유세 하나로 인해 이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지만, 모든 재정적인 면에서 비용 압박이 큰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보스턴대학(BU)의 재정담당 교수인 마크 윌리엄스가 5월 발표한 연구



매사추세츠의 주택상승으로 인한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는 김 드리스콜 부주지사(사진 가운데). 지난 4월 중순 렉싱턴의 패트리어츠데이 행사에 참가한 드리스콜 부주지사(사진 주정부 제공)

에 따르면 2013년 이래 매년 3만9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사추세츠를 떠나며, 매년 떠나는 수는 1,100%씩 증가하고 있다.

26에서 34세는 주내에서 31%로 가장 많이 주를 떠나는 연령층이며, 가장 소득이 높은 55에서 64세 세번째로 많은 연령층이다. 65세 이상은 단 9%만 주를 떠나는 선택을 한다.

주를 떠나는 주된 이유는 턱없이 높은 주거비용,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 비용 등으로 분석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이주를 선호하고 있는 곳은 세금과 주거비용이 저렴하게 균형을

이룬 주” 라고 적었다.

2021년 플로리다주가 가장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이주처였으며 뉴햄프셔,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로드아일랜드 순이었다. 플로리다는 매사추세츠에 비해 교육비용에서 날씨가 많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며 뉴햄프셔, 메인 그리고 로드아일랜드도 더 나은 점수를 기록했다.

주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서부 매사추세츠로 이동하고 있다. 많은 수요로 인해 일부 부동산은 스프링필드에 지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년전 우스터에 붐이 일었던 것처럼 지금은 스프링필드에

붐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스프링필드의 주택 중간값은 6월 \$290,000이었으며 보스턴의 경우 \$765,000이었다.

시니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

이주자들의 증가는 매사추세츠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 주민들이 적을수록 지자체 장들은 경찰, 소방관, 도서관 사서, 교사 등 공공서비스에 핵심적인 인력을 찾기 힘들어지게 된다.

재산 보유세의 증가는 소득이 제한된 시니어와 같은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같은 사람

들을 일컬어 “집부자 현금거지”라 부른다.

주정부는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시니어들에게 재산보유세 감면을 늘리는 정책 등을 포함한 지자체진흥법(Municipal Empowerment Act)을 의회에 상정했다. 회기말을 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하원은 아직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내년 예산안도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김 드리스콜 부주지사는 “의회가 이를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며 의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관광객 증가로 몸살앓는 샬럼, 가이드 수수료 인상

가이드 면허 비용 \$10에서 \$350로 대폭 인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녀재판으로 유명한 샬럼시가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 당국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투어업체에게 채찍을 들었으나 결국 투어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길 것으로 예상된다.

1692에서 1693년까지 진행된 마녀재판으로 유명한 샬럼은 보스톤에서 동북부로 약 30분가량 떨어져있으며, 해마다 할로윈에는 수많은 방문객들로 가득 차는 도시다. 근래에는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 10월 한달내내 방문객들이 붐비기 시작했고, 이는 9월까지도 확산됐다.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2022년 샬럼을 배경으로한 컬트영화 '호커스포커스(Hocus Pocus) 후속 편이 상영된 이후 관광객들은 1년 내내

붐비고 있다. 이것은 샬럼시가 이 도시는 할로윈뿐만 아니라 1년 12개월 모두 매력적인 곳이라고 알리기 위해 계획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시의 홍보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주는 충격을 4만5천명이 거주하는 이 타운이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됐다. 당면한 골칫거리는 가이드들을 따라 움직이는 투어 그룹들이다. 이들은 매일 생활하는 주민들의 도로를 막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점차 나아지기 보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06년 시가 투어 가이드 면허 관련 법안을 처리했을 때는 28명이 면허를 획득했으나, 지난해는 230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5월까지만 176명이 면허를 추가로 획득했다. 앞으로 할로윈을 대비해 더 많은 면허 신청이

예상되며, 수많은 비면허 가이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샬럼시는 조례를 변경해 투어 그룹 수를 40명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면허수수료를 \$10에서 \$350로 인상하도록 했다. 도미니 팡갈로 시장은 이 면허로 마련된 자금으로 투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단속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어회사들은 이 같은 논의에서 자신들은 완전히 배제됐으며 오히려 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 피해를 주는 문제로 취급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면허 수수료 상승이 업체에게 1년에 \$12,000에 달하는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더구나 높은 면허 수수료는 법을 준수하는 지역 가이드회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샬럼지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대형 투어 회사들이 샬럼에 진출하고 있다. 지역 가이드 회사들은 이

들 외부 업체들이 모든 불법 투어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시는 확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이드에게 면허 수수료를 \$50로 낮추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 확정기 비용 할인 외에도 투어그룹의 수를 작게 하는 경우 할인을 제공했다. 10명 이하인 경우 \$150, 30명 이하는 \$250, 40명은 \$350을 부과기로 했다.

팡갈로 시장은 “수많은 투어 여행객들이 거주민들의 불편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관광객들은 모든 샬럼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피해도 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혔다.

이번 가이드 수수료 인상은 결국 샬럼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샬럼 투어시에는 더 많은 투어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집에서 만나는 대치율 1% 최상위 커어 프로그램
4주안에 센이 술술 풀리는

중1-1 수학 완성

온라인 특강

- 대상: 한국 중학 1학년 수학 코스를 끝내고 싶은 학생 누구나
- 신청방법: QR 링크에서 신청
- 신청기한: ~2024. 7. 19. (비밀 기한 GMT +9H)
- 교육 iPad 무료대여 및 배송
- 학습진행 성취도에 따라, 최대 80% Payback

CoachON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New Nest Construction LLC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지루한 복근 운동은 그만! 이번 여름은 이 운동 하나로 똥배 걱정 날려버리세요!!



최근 제 인스타그램에서 32만뷰를 넘긴 릴스에서 공개된 복근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음악과 함께 따라할 수 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운동하실 수 있구요,

둘째, 같은 동작들이 반복되어 기억하기 매우 쉽습니다.

셋째, 시간대비 뱃살 감량 효과가 제대로!! 1분만 따라해도 복부의 자극과 토닝이 제대로 느껴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은 제 인스타 그램 yogasong_hayeon 계정의 릴스 영상과 유튜브 'yogasonghayeon'의 쇼트 영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Twist Knee Tap Crunch

1단계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한다리씩 올려줍니다.

2단계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기며 왼팔



꿈치를 오른 무릎으로 가져가 터치해주세요.

3단계 바로 반대로 방향으로 바꿔 크런치해줍니다.

4단계 두번 반복후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TIP! 복부를 강하게 등쪽으로 수축한 상태에서 무릎을 당겨주세요.

2. Twisted Toe Touch Crunch

1단계 이번엔 다리를 피면서 위로 힘껏 차 올립니다.

2단계 오른 손으로 왼발, 왼손으로 오른발을 터치하세요.

3단계 양쪽 두번 반복후 다음 동작으로 이어갑니다.

TIP! 손이 처음부터 발에 안 닿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발목이나 무릎을 터치해도 좋습니다.



3. Clap Under Thigh

1단계 한발씩 올리며 두 손을 허벅지 밑으로 가져가 박수 쳐줍니다.

2단계 음악에 맞춰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여 보세요.

3단계 두번 반복후 다시 처음 동작으로 넘어가 3가지 운동을 무한 반복해 보세요!!!

TIP! 하다가 중심이 흔들리거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실수에 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코어의 힘으로 운동을 이어갑니다. 매일 1분이상 일주일만 해도 뱃살이 급격히 빠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론 근육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TALK YOGAFULLNESSLIFE

@YOGASONG_HAYEON

CONNECT@YOGAFULLNESS.LIFE

WWW.YOGAFULLNESS.LIFE



'살빼는 약' 오젠폍 · 위고비 복용시 시력 잃을 희소질환 위험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젠폍이나 위고비를 복용한 사람들이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희소 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안과 ·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매스아이앤 이어' 소속 의사들은 작년 여름 '비동맥성전방허혈성시신경병증'(NAION) 환자가 이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최대 10명인데, 당시 의사들은 일주일 사이에 환자를 3명이나 발견했고 이들은 모두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 · 비만 치

료제 오젠폍, 위고비의 주요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유사체다.

지난 6년간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을 경우 NAION 발병 가능성이 미복용 환자보다 4배 높았고, 과체중 · 비만 환자는 미복용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발병 위험은 세마글루타이드 처방을 받은 첫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이날 '미국의사 협회 저널 -안과학'(JAMA Ophthalmology)에 발표됐다.

연구 책임자였던 조셉 리조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약물의 사용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지만, 향후 환자와 의사 간의 논의에서는 NAION을 잠재적 위험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NAION과 관

련한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당뇨나 비만 치료를 위한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CNN은 전했다.

오젠폍과 위고비를 생산하는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도 이번 연구가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CNN에 밝혔다.

다만, 회사는 부작용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어떻게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마글루타이드는 혈당을 낮추도록 신체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데, 이런 효과로 혈당이 변할 때 눈의 수정체 모양과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있다.

또 당뇨병은 NAION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팔리는 오젠폍과 위고비의 주의사항에는 '시력 변화'가 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2년 완료된 임상시험을 통해 세마글루타이드와 당뇨병 망막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마글루타이드를 쓰고 있거나 치료를 고려 중인 환자 중 녹내장 등 시신경 질환이 있는 환자는 NAION 위험에 대해 의사와의 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면 시력 변화를 경험하면 의사와 바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 · 당뇨 치료제 오젠폍과 위고비



미국, 버드플루 네번째 인체 감염

미국, 버드플루 네번째 인체 감염
콜로라도 축산종사자...독감 치료제 투약 후 회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미국에서 젓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인체 감염 사례가 네 번째로 나왔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A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CDC는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축산업 종사자가 H5N1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H5N1에 감염된 소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결막염 증상만 보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를 투약한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H5N1에 감염된 젓소가 처음 보고된 이후 12개 주

로 확산했다. 또한 4월 텍사스주 주민 1명이 감염된 젓소와 접촉한 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5월에는 미시간주의 축산업 종사자 2명의 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됐다.

CDC는 일반 대중에 대한 H5N1의 위험도는 여전히 낮다고 밝히면서도, 병들거나 폐사한 동물에 가까이 가거나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H5N1이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hrseo@yna.co.kr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핸디맨 앤디
HANDYMAN ANDY

플러밍, 번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독이 무너지고 있다"...美하원서 '바이든 사퇴촉구' 연판장 회람

민주당 엄호 전선 붕괴...하원 다시 문여는 9일 의원회의 '중대 분수령' 의원들 집단행동 결행하나...주지사들은 일단 지지 표명, 파열음 격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회람되는 등 TV토론 참패 늪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당내 압박이 확산일로다.

미 주류 언론도 연일 사퇴론에 가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회 휴회가 끝나는 오는 8일(현지시간)이 의원들의 결행을 위한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돌파 시도에도 불구하고, 분출하는 전방위 사퇴론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양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의 초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일 2명의 민주당 하원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한 인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5선 중진인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텍사스)이 지난 2일 처음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데 이어 라울 그리할버 하원의원(애리조나)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에 가세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메인)과 마리 글루센캠프 페레스 하원의원(위싱턴)은 직접적으로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한 하원의원은 악시오스에 "지난 몇 시간 동안 대의원들로부터 조를

정말 사랑하지만 물러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하원의원은 "댐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키맨'으로 떠오른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하원 의원은 "하킴이 신호를 보내면 모두 따라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하원의원은 폴리τικο에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보다 확실한 여론조사 통계 등 분명한 신호를 원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동료 및 참모진과 추가로 이야기해보길 희망한다고 악시오스는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하원이 독립기념일(7월 4일) 휴회를 끝내고 9일 열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 논의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폴리τικο는 "많은 이들에게 오는 월요일(8일)이 비공식적인 데드라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하원이 독립기념일 휴회에서 복귀해 의원들이 한곳에 다시 모이는 만큼 단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도 오는 9일 정례적인 하원 민주당 의원 회의가 잡혀 있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이든의 출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주류 언론의 사퇴 목소리도 거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참패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일간지인 보스턴글로브는 이날 '왜 바이든이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스턴글로브는 나라와 당을 위해 출마 포기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대표적 진보 매체인 뉴욕타임스(NYT)도 나라를 위해 경선에서 하차하라고 사설로 압박했고 영향력 있는 지역지 중 하나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 편집진도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거액 후원자들 사이에서도 '플랜B'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

팅스는 NYT를 통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권 경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주지사 모임 후 지지를 표명하는 등 당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타로 거론되기도 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바이든을 지켜줘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도 지지를 약속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와 웨스트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도 엄호 행렬에 동참했다.

백악관이 일단 대선 출마 포기가 가능성은 "0%"라고 뺄기를 막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토론 참

패보다도 이후 대처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고 폴리τικο가 전했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서 실기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이 백악관과 캠프가 제때 소통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참패 후폭풍이 며칠간이나 정가를 휩쓸고 난 이후에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폴리τικο는 이런 실책들이 바이든 캠프의 위기 대응 능력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만 더했다고 꼬집었다.

eshiny@yna.co.kr

좋은사람들
www.huram.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트럼프, 토론뒤 지지율 격차 더벌려...바이든, 사퇴압박 더커질듯

NYT "바이든 41% vs 트럼프 49%"...CBS "바이든 48% vs 트럼프 50%"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첫 TV 토론 이후 더 커지고 있다.

TV 토론 '폭망'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재선 도전 포기 요구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우려했던 악몽이 현실로 확인되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오면서 가중된 후보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1천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49%)과 큰 격차를 보였다.

NYT는 반올림되지 않은 득표율을 사용해 계산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토론 이전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섰다.

적극적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3%, 4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고 고도 답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59%, 무당층에서는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우려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패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한층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민주당 및 무당층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응답 역시 토론 후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토론 이전에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남아야 한다고 답했지만, 토론 이후에는 48%만이 후보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토론 이전 21%, 토론 이후 22%가 후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CBS 방송이 같은 기간 유거브에 의뢰해 등록 유권자 2천8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8%와 50% 지지율을 보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경합주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일하게 48% 지지율을 유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로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경합주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50%의 지지를 기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49%)에게 박빙 우세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48%만이 나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했다.

또 야후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국의 성인 1천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의 46%에 달했다. 응답자의 43%는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반응했다.

또 절반을 넘어선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의 승자라고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43%와 45%로 여전히 박빙세를 보였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거나 적절한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했다.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는 거취 문제 결정의 관건은 여론 조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속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경찰 "역주행 차량 스키드마크 없어...호텔 나오자마자 가속"

동승자 참고인 조사서 "브레이크 안들었다"...블랙박스엔 "어, 어" 비명
경찰 '스키드마크 있다→없다' 1시간만 정정...혼란 야기 비판에 사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키드마크는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할 경우 도로 표면의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흡착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급발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단서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키드마크가 발견된 게 없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키드마크가 급발

진 단서가 아니냐는 부분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주행 전 구간에서 스키드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마지막 정차 지점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해 차량이 스스로 멈춘 것을 고려하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을 확률은 낮은 만큼, 차씨가 정차하기

전 역주행으로 돌진하던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급발진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사고 차량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웨스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은 주

차 차단기를 통과해 완만한 경사로의 오르막길을 따라 지상으로 올라간 뒤 출차 직전 고무로 된 차단턱을 밟고 지나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차단턱에서부터 가속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과 피해 차량인 BMW, 쏘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전날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G80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국과수 정밀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분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경찰은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차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릴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날 가해 운전자 차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갈비뼈가 골절된 차씨의 건강 상태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정식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사를 통해 피의자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 시간을 확정했다"며 "아무래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 방문 조사가

)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는 전날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정 과장은 "A씨가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1차 진술을 했다"며 "피해 차량인 BMW와 쏘나타 차주도 조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확보한 G80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원인을 밝힐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어, 어" 등 음성과 비명이 담겨 있으나 차량에 이상이 생겼는지 여부를 짐작할 만한 대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G80 블랙박스 영상에 급발진이나 운전 과실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이라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다만 부부 간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를 1명 추가로 확인했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었다.

이로써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총 16명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시간 뒤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었다. 착오였다"며 뒤늦게 정정했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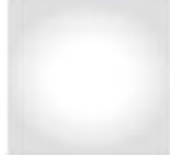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skim@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프리진 978.494.2643 jprez@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0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파커 주 617.780.7635 parkerj@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리 978.866.3248 jinalee@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538.3397 ryeal@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38.0787 sarahkim@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83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혜수 김 617.538.8973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미나 김 213.503.0387 minakim@bostonpremierrealty.com	 미카 김 413.507.1402 mikakim@bostonpremierrealty.com	 선호 김 617.913.338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진 김 617.877.0387 jhee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781.838.3412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혜수 김 781.95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혜수 김 617.913.1162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617.913.5728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4.641.9102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617.877.0387 jheej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5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8.449.0117 luji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ens 978.873.0076 msorrens@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정혜진 박 201.446.8995 jeonghyej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jreami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657.28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3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채상병 특검' 밤샘 필리버스터... "탄핵 교두보" "위헌? 공부 좀 해"

첫 타자 유상범 4시간 18분 토론... 이어 박주민 46분 찬성토론
與 '대장동' 언급에 민주 '사과하라' 고성... 與 밤샘 연좌농성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김철선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9분께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이 제외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독소조항'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됐다"며 "여야 합의의 전례를 배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이미 배제돼 있다는 점을 지적, "수사외압·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

라며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행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영결식에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이 언급되자 태도를 바꿔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라고도 비판했다.

발언 중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자, 유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워하라. 공부 좀 하라 공부 좀"이라고 맞받았다.

유 의원의 반대토론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착석한 채로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 '수사 언론 브리핑 조항' 등에 대해서는 '최순실 특검법'을 소환해 반박했다. 해당 특검은 윤 대통령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의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러자 최순실 씨가 위헌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런 건 좀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틀린 말씀을 안 한다"고 꼬집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맞아요"라며 큰소리로 호응했다.

'수사 언론 브리핑' 조항에 관해서도 "최순실 특검 때부터 똑같이 들어간 조항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수사팀 브리핑 장면을 담은 사진 패널을 꺼내 "윤 대통령이 특검팀에 속해있을 때 브리핑에 같이 배석한 모습이다. 이때 윤 대통령조차도 아무 문제 제기 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며 650여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약 20분에 걸쳐 일부 메시지를 낭독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조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자신이 "곧 자녀를 군에 보내야 할 부모"라며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조치에 문제없었는지 군에 자녀를 보낼 부모 입장에서 따져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군은 폐쇄적 조직이라서 인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는 게 검찰, 경찰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그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쪽 시각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은 "애국심과 공명심은 중

이 한 장 차이"라며 "(박 단장이) 선의로 애국심 발휘했다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감을 잃어서 적법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그 수사는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토론 중에 '대장동 비리 수사'와 민주당 인사들의 '입건 조사'를 가정에 언급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연단 앞으로 나와 항의하며 주호영 국회부의장과도 언성을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주자나 경원 의원, 송석준 의원, 박규택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찬성토론에는 민주당 박 의원 이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utzza@yna.co.kr

kcs@yna.co.kr

한동훈 "채상병사건 진실 밝히는데 보수가 소극적이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4일 '채상병 사건은 보훈·안보의 이슈이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정도의 돌과구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연 100명(국회 재표결시 부결 요건)을 지킬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절대 통과돼선 안 된

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후보는 또 "당정 관계는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민생과 나라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은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모드를 아직 거두지 않고 있다. 지금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아주 오랫동안 암흑기에 빠질 것"이라며 "제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후보와 일문일답.

출마 선언한 지 열흘이 됐는데 초반 레이스 소감은.

▲ 총선이 일방적인 응원단장 같은 식의 선거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깊게 만나고 설득하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지금이 더 좋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는데.

▲ 대통령과 저의 정치적 목표는 완전히 똑같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토론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그걸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견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따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을 위한 시너

지를 낼 수 없다.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없다고 경쟁자들은 주장한다.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하나.

▲ 정치적 목표가 완전히 같은데 신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성공한 정부여야 한다는 생각이 저보다 강한 사람은 없을 거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사이에 배신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내부 분열 우려 목소리가 있다.

▲ 이미 108명 중 4~5명의 의원은

민주당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 정도의 대안 제시도 없이 100석을 지킬 수 있나. 다른 후보들은 특별한 답을 안 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만 한다. 어떻게 막겠다는 말은 안 한다. 저는 어떻게 막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출마 선언 후 의원회관을 돌 때 만난 중진 상당수가 '생각해보니 이거 괜찮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이사를 뜬겨운 난로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답이 없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이렇게 돌과구를 내드려 좋아하는 분이 더 많았다.

'돌풍'서 국무총리役 설경구 "비현실적 인물이지만 대리만족 기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처음 '돌풍' 대본을 받아서 읽는데 글에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쪽쪽 읽히고 좋았죠. 그런데 막상 결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드라마 제작 환경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았죠."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마주한 배우 설경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돌풍'으로 처음 드라마 주연을 맡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설경구는 작품 공개를 기념한 이날 인터뷰에서 "드라마 제작 환경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며 "드라마의 많은 대사를 어떻게 다 소화해야 할지도 걱정이었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겁도 먹었다"고 털어놨다.

그 말처럼 드라마는 영화보다 분량이 긴 만큼 배우들이 소화해야 할 대사의 양이 많다. 그런데도 제작 기간은 영화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설경구가 '돌풍'에서 맡은 역할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 박동호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라 전체 대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는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분량이 길어서 모니터링 시간이 부족했다"며 "한 번만 더 촬영하자"는 말을 하기가 눈치 보이는 점도 조금 아쉽다"고 영화와는 다른 드라마 출연 여건을 설명했다.

하지만, 설경구는 "막상 촬영해보니까" 현장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는 하지 않고 재미있었다"고 떠올렸다.

설경구는 지금 미공개 드라마인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퍼 나이프'를 촬영

하고 있다. 1994~1995년 단역과 조연으로 몇 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것을 끝으로 영화와 연극에만 출연하던 그가 '돌풍'을 시작으로 다시 드라마에 돌아온 셈이다.

'돌풍'은 국무총리 박동호가 대통령 장일준(김홍과 분)을 독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은 다행히 당장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중태에 빠지고, 박동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검사 출신인 박동호는 장일준의 오른팔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장일준이 초심을 잃고 부패한 기업인과 결탁하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대신 박동호에게 누명을 씌워 수사 받게 만들고, 이에 박동호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독살하기로 결심한다.

설경구는 그런 박동호가 "판타지적인 인물"이라며 "어떤 인물을 모델로 해서 그가 탄생했다고 연상되는 사람도 없다.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동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도 불사한다. 많은 시청자가 박동호의 폭주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호평했다.

설경구는 "박동호에게 (시청자들이) 공감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선을 넘으면서까지 잘못을 바로잡는 박동호의 방식이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판타지니까 대리만족하게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없다 보니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박동호가 맞이하는 결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작가님이 참 독



하게 쓰셨구나" 싶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설경구는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며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뭔가 보여줄 게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결국은 제 모습으로 연기하는 거라서 반복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으니까, 느낌이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자기를 구워도 30년 40년 넘게 하면 '고수'라는 느낌이 나야 하는데, 배우는 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jaeh@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tore for sale



Charley's Philly steak sandwich

장소 : 보스톤 큰 몰에 위치
매매 가격 \$500,000.00
Profit: 2년안에 투자금 회수
스토어 리스 9년 가맹점 계약 10년
Owner 69세 은퇴

연락처 : 781.778.8665 미국,
416.817.0888 토론토
이메일 : ppr149@gmail.com

Realtor 사절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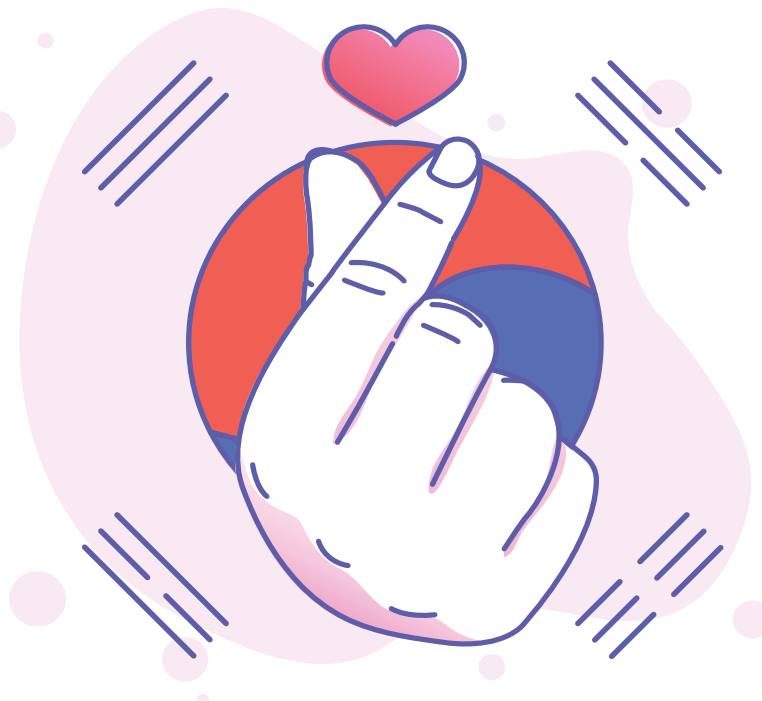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K-Culture Contest



K-pop, Dance, 전통악기 연주, 사물놀이,
농악 등 한국을 상징하는 공연예술

- * 참가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환영
- * 참가 방법: 개인이나 단체의 5~7분 가량의 공연을 e-file 로 제작하여 e-mail 로 접수(swpark@comcast.net)
- * 심사 방법: 2024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팀 중에서 3개 팀을 선발하여, 동년 8월 18일(일), Portsmouth, NH 에 소재한 "Strawberry Banke Museum"(야외)에서 개최될 "NE BIPOC FEST" 행사장에서 결선 공연으로 우승팀 선발 (우승팀은 청중들에 의해서 선발)
- * 상금: 1등: \$1,000.00
2등(2팀): 400.00 씩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GC)
- * 문의: 박선우(603-767-1356)

주최: 뉴햄프셔 한인회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6)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603년, 24세의 김호림이 14세 풍월주로 취임하였다. 호림은 미실의 손서孫婿이다. 호림이 미실의 손녀 유모와 결혼할 당시 미실은 나이가 많았다(미실은 546년 경에 태어났다).

김호림은 진평왕의 왕후인 마야부인과 동부이복 남매이다. 그래서 김용춘이 596년 13세 풍월주로 취임하면서 호림을 부제로 삼았다. 호림의 부모는 김복승과 송화공주이다.486) 김호림은 처음에 문노의 딸인 현강을 아내로 맞았었는데 일찍 죽었다. 그래서 다시 미실의 장남인 하종의 장녀 유모를 아내로 맞았다. 그래서 호림이 미실의 손녀사위가 되었다. 호림은 또한 김유신의 손위 동서이기도 하다. 하종의 차녀 영모가 김유신의 첫부인이다.

미실은 장남의 장녀인 유모가 결혼을 하자 그녀를 더욱 귀엽고 대견스럽게 여겼다. 이에 죽기 전에 꼭 증손자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김호림에게 천부관음을 만들어 아들을 기원하도록 하였다.

천부관음(천수관음)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보살이다. 중생의 모든 것을 ‘듣고 보며 보살피는’ 의미의 손 1천 개와 눈 1천개로 형상화하여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불상이

나 탕화에 보면 1천 개의 손을 만들려는 듯 엄청난 수가 있지만, 대개 42개 정도이고 보통 관세음보살상 후편 광배에 천수千手を 상징하는 수많은 손이 있고, 이 손마다 눈이 하나씩 있다. 아울러 중생을 보살피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하나씩 뽐낸 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디어 미실과 김호림 부부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호림과 유모는 590년에 아들을 낳았다.487) 그가 선종랑善宗郎이다. 선종은 후일 승려가 되어 643년(선덕여왕 12년)에 계율종궤律宗(또는 남산종南山宗)을 창시한 자장율사慈藏律師이다.

자장은 636년 선덕여왕의 명으로 제자승실 등 10여명과 당나라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가사와 사리를 받고 불도에 정진하였다. 그리고 643년 귀국하였다. 분황사 주지가 되었고, 대국통이 되어 승려의 규범과 승통의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 자장은 또한 황룡사 9층 목탑의 창건을 건의하여, 645년에 완공하였다. 그리고 646년에는 통도사와 금강계단을 세웠다. 그 외에도 전국 각처에 여러 개의 사탑을 세웠다. 자장은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처음으로 관복을 입게 하였고, 650년(진덕여왕4년)에는 당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건의하였다. 만년에는 태백산에서 정암사(석남원)를 세워 득도하다가 658년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였다.

한편 612년 김호림은 풍월주의 위를 김유신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무림거사茂林居士라 부르며 조정의 정사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고 알천, 임종, 술중, 염장, 유신, 보종과 함께 칠성우를 이루어 남산에서 자적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큰 일이 있을때면 호림과 칠성우들의 의견을 받들어 물었다(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다-기이1 상, 자장율사는 아버지 김호림이 무림거사라 칭하고 자적한 곳이 남산이기에 자신이 창시한 종파를 ‘남산종’ 이라고 했을까?).

486) 복승의 부모는 산종山宗과 사도미이고, 산종의 부모는 제21대 비처왕과 벽화이다. 후궁 벽화는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꼽히는데, 500년 비처왕이 날이군(현재 경상북도 영주)에서 데려온 그곳 파로의 딸이다. 송화공주의 부모는 박영실과 지소태후이다. 영실과 지소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황화와 송화 두 딸을 두었다.

487) 590년에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자장율사의 출생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자장의 부모인 김호림과 유모의 출생연도와 결혼적령기/또는 가임기 등을 참고하여 자장이 590년 이후에 태어났음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김호림의 출생년은 579년이다.

과연 11세에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 보다는 호림은 유모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첫 부인이 있었다. 8세 풍월주 문노와 윤강의 딸 현강이 호림의 첫부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강은 일찍 죽었다. 그리고 나서 호림이 유모와 결혼하였다. 호림의 부인 유모와 김유신의 부인이 된 처제 영모의 출생연도의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아버지인 하종의 출생연도는 화랑세기에 전한다. 하종은 546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하종의 장녀 유모가 584년 전후에 태어났다면, 600년 무렵에 결혼적령기(당시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처럼 7세에 혼인한 경우도 있다) 와 가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차녀 영모는 612년에 김유신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 언니 유모도 605년 무렵 또는 그 이후에 호림과 혼인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들 자장(선종)의 출생연도는 590년이 아닌 600~610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1,500년 전의 일을 10~20년의 오차가 대소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기에, 한번 고증해 보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집에서 만나는 대치동 1% 최상위 케어 프로그램

4주안에 쎈이 술술 풀리는

중1-1 수학 완성 온라인 특강



QR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100% 무료체험 이벤트

교육 iPad 무료대여 및 배송

- 대상 : 한국 중학 1학년 수학 코스를 끝내고 싶은 학생 누구나
- 신청방법 : QR 링크에서 신청
- 신청기한 : ~2024. 7. 19. (서울 기준 GMT +9H)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LY 4th - JULY 11th, 2024

Be the Best BBQ on the Block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머리새우

\$4.99

20-30'S/LB



Korean BBQ Sauce (Marinade)

해오름 소갈비/불고기 양념

2\$5.99

**BEEF SHORT RIB/
BEEF BULGOGI
1.85 LB**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푸른 산호초' · '긴기라긴니...' 80년대 日히트곡에 국내팬 꽃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아~ 와 타시노 고이와~ 미나미노~ 가제니 닛테 하시루와~' (아~ 내 사랑은 남쪽의 바람을 타고 달려가요)

1980년대 일본을 강타한 마쓰다 세이코(松田聖子)의 메가 히트곡 '푸른 산호초'(青い珊瑚礁)가 40여년이 지난 올해 여름 일본 현지는 물론 바다 건너 우리나라 음악 팬들의 귀까지 사로잡았다.

결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지난달 일본 도쿄 돔에서 연 대규모 팬미팅에서 선보인 솔로 커버 무대가 큰 화제가 된 덕분이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 팬이 하니의 이커버 무대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은 게재 6일 만에 368만뷰를 돌파해 400만뷰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영상의 '좋아요'는 10만개가 넘고, 댓글은 1만개에 육박한다.

영상 속 하니는 흰 스커트와 푸른색 줄무늬가 돋보이는 상의 차림으로 청량한 분위기를 뽐냈다. 그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시원시원하게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하니는 이 무대에서 마쓰다 세이코가 1980년대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유행시킨 단발머리인 이른바 '세이코 컷'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하니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호주 출신의 호주·베트남 국적자라는 점은 주목도를 높였다.

이 무대가 화제가 되면서 팬들은 댓글에서 '하니는 단 3분으로 40년 전 일본을 끌어들였다', '하니가 도쿄 돔에서 날린 만루 홈런', '너무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푸른 산호초'는 일본의 전설적인 여가수 아이돌이자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히 활동하는 가수 마쓰다 세이코가 1980년 발표한 대표곡이다. 마쓰다 세이코는 이 곡에서 빼어난 라이브 실력을 토대로 압도적인 귀여움을 발산해 당대 최고의 아이돌로 발돋움했다.

특히 1980년대는 일본 경제가 세계를 호령하던 버블 호황기로,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는 당시를 상징하는 콘텐츠다.

이 때문에 가요계에서는 하니의 이번 도쿄 돔 무대가 일본 기성세대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Z세대에게는 신선한 매력을 선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오리온 뉴스는 하니가 "1980년대 아이돌 노래를 청량하게 부르고 환한 미소를 띠며 객석을 감미로운 분위기로 만들었다"며 "노래가 끝난 후 앞면에도 도쿄 돔은 충격의 여운이 계속되면서 환희로 가득 찼다"고 호평했다.

그동안 2000년대 레트로 감성으로 가요계 Y2K 열풍을 선도한 뉴진스가 이번에는 20년 더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복고'를 보여줬다는 점도 눈에 띈다.



'푸른 산호초'는 1980년대 일본 노래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전날 일간 222위를 차지해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이에 앞서 일본 10대 트로트 가수 스미다 아이코(住田愛子)가 지난 4월 MBN '한일 가왕전'에서 부른 일본 남자 아이돌 곤도 마사히코의 1981년 발매 히트곡 '긴기라긴니 사리게나쿠'(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 역시 유튜브를 중심으로 잔잔하게 화제가 됐다.

스미다 아이코가 이 곡을 커버한 무대의 유튜브 영상은 44만뷰를 넘겼다.

이 노래는 일본 문화의 공식 유통이 막혀 있던 시절 우리나라에도 암암리에 알려져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한 곡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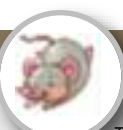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K팝 시장이 10대가 주도한다고 해도 경제력을 갖춘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층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이들에게 1980년대 복고 콘텐츠는 뿌리이자 향수의 근원"이라며 "요즘 불황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흐름이 많은 것을 간파한 콘텐츠들"이라고 짚었다.

김 평론가는 그러면서 "뉴진스는 '과거로의 퇴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창조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으로써 도쿄 돔을 단순히 명성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점을 증명했다"며 "'한일가왕전'은 복고의 흐름에 올라탄 정도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7월 7일 - 7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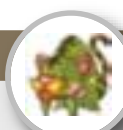
쥐띠 | 이해력이 요구되는

● 운수: 제품에만 질의 향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 금전: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경솔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뒤에 가서 손해를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 애정: 서로가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인내력과 이해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7, 12일 길일, 8, 9일 주의.



소띠 |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 운수: 때로는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금전: 너무 물질적인 것에 얽매인 생활을 하지 마세요. 적은 것에 욕기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8, 11일 길일, 9, 1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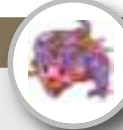
범띠 | 보람을 얻게 되는

● 운수: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게 됩니다. 힘든 일을 해도 크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꾸 미뤄지던 일이 차츰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작은 행복에 기뻐해 보세요. 두 배로 나온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3일 길일, 7, 10일 주의.



토끼띠 | 새로운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 운수: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비로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 금전: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면에서 나아지고 계약이나 거래가 잘 성사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9, 10일 길일, 8, 1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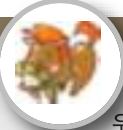
용띠 |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 운수: 일 처리 과정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빛나갈 수 있습니다. 매사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변화가 많고 풀릴 듯 말 듯 하니 초조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멀리서 바라만 보던 사람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뱀띠 | 꿈꾸던 일을 실현하는

● 운수: 평소 바라던 것을 하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꿈꾸던 일을 실현하게 되겠습니다. ● 금전: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거나 결코 빌려줄 것 같지 않았던 상대에게 금전을 융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바깥 활동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말띠 | 인생을 바꿀 수 있는

● 운수: 비로소 빛을 보게 되니 삶에 활기도 생길 것입니다. 우물, 좌절, 초조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지금의 변화가 많겠습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어 가는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양띠 |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 운수: 그동안 가져왔던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면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 금전: 성량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세요. 의욕이 되살아나니 평소보다 더 일하게 되고 수입도 놀랄 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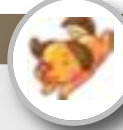
원숭이띠 | 현실에 만족하도록

● 운수: 현실에 불만이 있어도 곧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곳곳이 잘 참아내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위에 건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건주면 남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 애정: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위안을 주도록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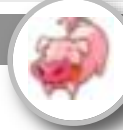
닭띠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 운수: 비록 자신과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 금전: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자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하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애정: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남이 시작되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2일 길일, 11, 13일 주의.



개띠 | 단호한 결정을

● 운수: 깜짝 놀라게 하고 깨지는 일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 충동사고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같이 어울려 살지만 결국 섬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고독 앞에서 받는 상처가 제법 클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13일 길일, 11, 12일 주의.



돼지띠 | 물 흐르는 대로

● 운수: 자그마한 것이 여럿이 모여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큰 것을 잃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건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2일 길일, 7, 13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감사합니다' 신하균 "이렇게 차디찬
얼음 같은 캐릭터는 처음"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이렇게 차디찬 얼음 같은 캐릭터는 처음이에요. 신선했죠"

tvN 새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신하균은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한번 물면 놓치지 않고 박멸하는 캐릭터를 맡았다"고 배역을 소개했다.

오는 6일 처음 방송되는 '감사합니다'는 드라마 속에서 주로 상자에 컴퓨터와 서류를 담고 빠르게 퇴장하는 역할로만 그려졌던 감사팀 직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신하균은 JU건설 감사팀의 팀장 신차일을 연기한다. 단정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에 검정 슈트를 입고 다니는 신차일은 냉철하고 칼 같은 결단력을 가진 인물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가차 없이 냉혹하게 다룬다.

신하균은 "대사가 많아서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템포나 리듬감을 생각하면서 소화해냈다. 제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차일은 공격적으로 감사하는 캐릭터다 보니 늘 위험에 노출돼있어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을 가지고 다닌다"며 짜릿한 액션신도 기대해달라고 귀띔했다.

"제가 굉장히 잘 달려요. 자동차도 빠르게 쫓아다닙니다. 다양한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웃음)"

감정 따위는 없어 보이는 신차일은 정반대 성격의 신입 사원 구한수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다.

구한수는 정이 많고 믿음이 넘치는 인물로,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

구한수를 연기한 이정하는 "처음에



구한수는 지나치게 냉철한 신차일을 불편해하고 싫어하지만, 점점 그를 닮고 싶어 하고, 어느 순간 둘이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격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JU건설 부사장 황대웅 역에는 진구가 나서는데, 진구는 "처음에는 저를 미워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대웅은 감사팀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황령처럼 보이는 행동을 나름의 정의롭히고 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황대웅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궁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권영일 PD는 "오피스물에 활극의 재미를 더했다"며 "흔히 생각하는 황령과 배임뿐 아니라 사내 불륜, 채용 비리, 기술 유출, 직장 내 괴롭힘 등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준비돼있다"고 소개했다.

coup@yna.co.kr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BTS 지민 · 정국의 예측불가 여행기 '이게 맞아?!' 8월 공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정국의 예측할 수 없는 추억 여행이 펼쳐진다.

빅히트뮤직은 지민과 정국이 출연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이게 맞아?!'를 8월 8일 디즈니+에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게 맞아?!'는 지민과 정국이 입대 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여행을 떠나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다.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는 두 사람은 미국을 시작으로 제주도

와 일본 삿포로를 여행하며 캠핑, 카누, 로드 트립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긴다. 지민과 정국은 부산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팬들 사이에서 '부산즈'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이날 방탄소년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포스터에는 두 사람이 미국에서 카약을 타는 모습이 담겼다.

총 여덟 편으로 이루어진 '이게 맞아?!'는 다음 달 8월 1화와 2화를 공개한다.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한 편씩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제 14회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원) 졸업식에서...

“유나이티드 두나미스신학대학교(총장:최영식박사·학장:김희복박사) 제14회 졸업 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30일 오후 하크네시아교회에서 거행돼 목회학석사(M.Div)4명과 신학사(B.Th)2명을 배출했다. 또 학교생활과 성적 등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교성장과 교회지도자 배출에 공로를 세운 3명(김희복 학장, 배영숙 목사, 한삼현 교수)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날 졸업 감사예배와 학위수여식에는 가족과 친지, 교회성도들과 이 학교 교수진 등 150여명이 참석해 교회지도자로 첫 발을 떼는 졸업생들을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학장 김희복목사는 이날 훈사에서 말씀연구와 기도생활을 신앙인이 지켜야 할 일상생활의 두 바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기초생활이 있을 때 자신감과 영적 능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룩한 영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역현장을 달려가 영혼구원 사역과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며 더 넓고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 학교 교수 한삼현박사는 “한국 총신대와 총신신대원,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미국에 왔는데, 오늘 명예박사로 마침표를 찍게되어 하나님과 학교측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이날 학위받은 졸업생과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M.Div): 박 글로리아, 신영, 전향란, 허조이. 신학사(B.Th): 김민정, 이영재. 총장상(성적최우수상): 허조이 /학장상(성적우수상): 박글로리아 /행정총장상: 전향란 /글로벌총장상: 신영 /총동문회상: 김민정 /법인대표 이사장상: 이영재 졸업생들의 시상식이 있었다. 교수 허상회박사 인도로 드린 졸업 감사예배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이스신학교 학장 김정아 박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사역에 동참한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축하했다.

‘왕국사의 출발’ (창4:1-8)이란 제목으로 강단에 오른 김정아박사는 하나님나라를 왕국사로 표현했다고 소개하면서 하나님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별하시는 백성들과 그들을 이끄시는 주권과 언약으로 확장되며 이 사역에 동참한 졸업생들과 성도들을 축복했다. 그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을만한 제사를 드렸다면 비록 가인에 의해 죽임 당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아벨의 피를 통해 계속 이어지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활 모양의 무지개를 언약의 표식으로 우리에게 예시했다고 교회지도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 강조했다.”

참으로 감동의 시간이었다. 처음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원) M.Div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처음 친한 선배 언니로부터 소개를 받고 여가지기 다른 신학교를 찾아볼 겨를 없이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원)’과 인연이 되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두나미스 신학학교는 대학부(신학과)와 신학대학원(목회학과, 선교학과, 상담학과), 박사원(신학박사, 목회학박사, 상담학박사)이 있으며 수업은 뉴욕 하크네시아교회와 뉴저지 성도교회 두 곳에서 진행된다. 나는 뉴욕과 뉴저지 두 군데서 수업을 들었기에 학점을 일찍이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학교측의 권유로 1년 늦게 졸업을 하게되었고, ‘상담학 박사과정’ 수업을 듣게 되어 올 가을이면 박사과정 수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봄학기부터는 ‘논문 수업’을 듣게 된다.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원)’은 내게 친

정과도 같은 곳이다. 여느 신학교에 비해 여성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신학교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여느 남성 목회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느 학교보다도 ‘실천신학(맨해튼 선포외침전도/미국 50주 전도/세계 각국 전도)’에 강하고 김희복 학장님의 기도꾼, 전도꾼, 선교꾼의 철두철미한 말씀과 기도는 우리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원)’ 학생들에게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다. 여느 신학교 학생들보다 서로를 아끼고 돕는 선후배의 아낌과 섬김과 나눔은 자랑을 넘어 든든한 ‘두나미스인’의 투철한 믿음이기도 하다.

‘예수서원’ 원장이신 고석희 박사님께서 ‘두나미스 신학대학교(원) 글로벌총장이 되셨다. 이번에 졸업생으로서 글로벌총장(고석희 박사)상을 받게 되어 내게는 큰 영광이기도 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가운데 오래도록 남을 자랑이고 축복임을 알기에 더욱이 감사한 날을 보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성령의 폭발적인 기운으로 기도꾼, 전도꾼, 선교꾼이 되어 ‘두나미스 영원히 불타오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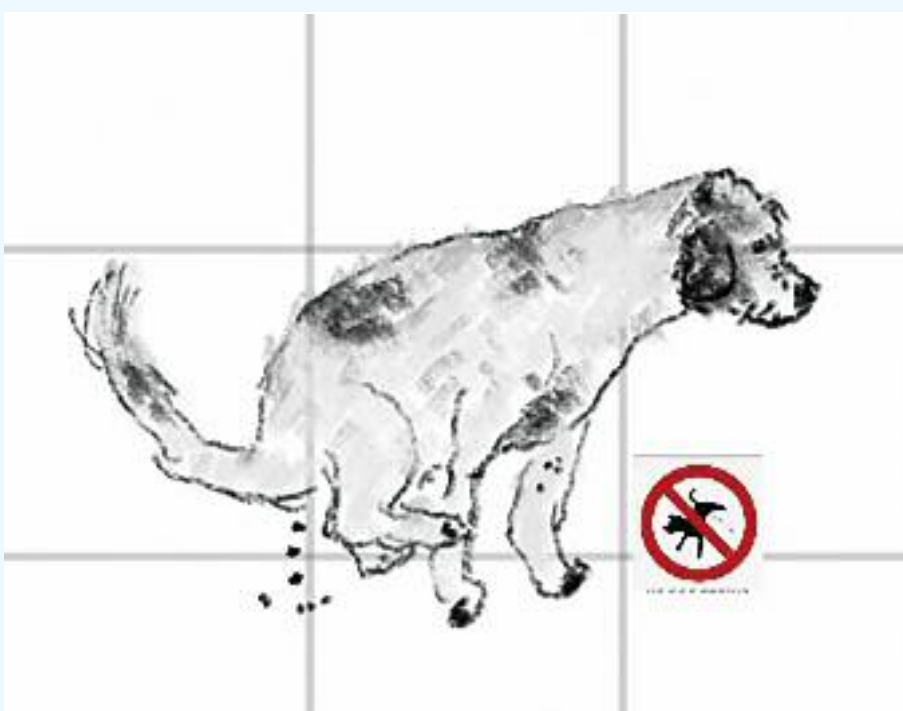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우리 송이 (4)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천병상 시인이다. ‘그리움을 그리워 할 테니’가 제목이다. 개가 짖어도 버들강아지에 봄바람이 속삭인다고도 했다.

개가 짖어도
저녁 하늘에
구름은 흘러가고...
개가 짖어도
버들 강아지에
봄바람은 속삭이고
...

(천병상, 그리움을 그리워 할 테니 중에서)

서울시에서도 글판을 단다고 했다. 몇년 전에 걸었던 글판의 글이다. “버들강아지 반가워 꼬리 흔든다. 봄이 왔나보다”. 버들강아지는 2018년이라 했다. 버들강아지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할 적엔 솟털마냥 부드럽다. 아닌게 아닌바. 우리집 강아지 송이털도 솟털마냥 부드럽다.

송이 이녀석의 몸집은 더이상 크지는 않는다. 눈치만은 무척 빨라졌다. 또한 녀석의 표정은 읽을 수 없다. 꼬리만 자주 살랑살랑 흔든다. 걷는 모습 역시 볼만한데, 솟다리가 그런가. 총총걸음일적에,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땡땡거리며 걷는거다. 종걸음

치는 모습이 정녕 땡땡이 처럼 보이는 거다.

땡땡이. 말이 그럴듯 하다. 요즈음은 ‘개’가 접두어로 붙은 말들이 유행한다. 모두 점잖은 말은 아니다만 귀에 익은 말들도 있긴 하다. 개팔자, 개망신, 개떡 따위가 그럴다. 개발에 땡난다는 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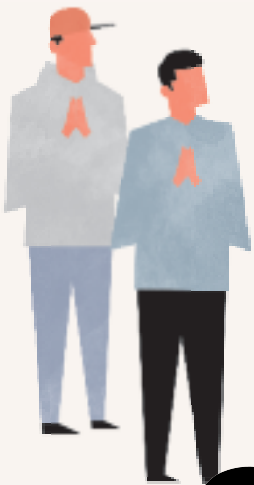
개는 땡을 몸으로 흘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몸속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낸다 하던가. 우리 송이는 역시 산책할 적엔 자주 오줌을 누다. 강아지의 방뇨는 흔적을 남기는 행위라 했다. 게다가 다른 개들이 다녀갔는지, 오줌은 누웠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열성

이다. 분명 산책나가기 전까진 참을 게다. 방광염이라도 걸리는건 아닌가. 은근히 걱정한다.

일이 있어 북쪽으로 주재 경계선을 넘은 적이 있다. 셀렘 이었는데 아치형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Pet Cemeteries & Crematories. 애완동물 화장장이며 공동묘지였던 거다. 말은 들은 적이 있다. 개도 죽으면 묻어 주는데 묘지까지 만든다는 거다. 요즈음 한국에선 개팔이란 말이 유행인 모양이다.

내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17)

TBO play



한국방송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시는 한국방송 서비스 보다 저렴하게!

최근 1개월치 빌을 보내주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미주 합법 한국방송 서비스 Since 2009



티보 플레이로 보세요!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환자 100만 시대, 30~40% 이석증이지만... 뇌신경계 질환 여부도 확인해야



흔히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이석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 이석증이 아닌 뇌신경계 질환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어지럼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경과 조소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어지럼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순간 핑 도는 느낌, 몸이 기울어지는 증상 등 어지럼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귀의 이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지럼증 원인이 귀의 문제인지 뇌신경계 질환 때문인지를 잘 파악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어지럼증 환자 수는 101만5119명으로,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73만6635명보다 약 38% 증가한 수치이다. 어지럼증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을 겪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어지럼증은 외래와 응급실에서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로 원인이 다양해 단일 진료과에서 진료하기 어렵다.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이석증’ 이 흔하지만 뇌신경계나 심장 질환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석증은 머리 움직임에 따라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이 수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상태가 반복되는 증상으로, 어지럼증 환자의 30~40%가 이석증 진단을 받는다. 이석기관의 이석이 제자리를 이탈해 반고리관에 들어가 평형감각을 자극해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이석증으로 나타나는 어지러움은 개인에 따라 증상 정도가 다양하다.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자다가 머리 방향을 바꿔 누울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 때 등 머리 움직임과 연관이 높다. 또한 속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 가슴 두근거림과 식은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나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외부 충동로 평형 기관 감각세포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불규칙한 식사,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 치료는 고개 위치를 바꿔가며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전정기관으로 이동시키는 이석치환술이 보편적인 치료법이다.

대부분 2주 이내로 회복되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머리를 급격히 회전하는 동작은 줄이는 것이 좋다. 가만히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석증 발병 확률이 높아지므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누워있지 않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는 이석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

기에 명상 등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D 결핍이 이석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평소 햇빛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D 생성을 돕는 것도 좋다.

어지럼증은 이석증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병변 때문에 발생하며 두통이나 만성피로, 평형장애 속이 메스꺼거나 구토, 오심 증상 등을 동반한다. 특히 뇌졸중으로 급성 중추성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뇌혈관이 좁아져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거나 뇌혈관이 과열됐을 가능성이 있다.

뇌종양도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종양이 뇌 일부를 누르거나 뇌내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압력이 상승해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뇌종양이 있다면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증상이 동반되며 새벽 시간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종양 위치에 따라 신경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만성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는데, 안구 운동 검사, 전정 신경 검사, 뇌혈류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동적 평형 검사, MRI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진단된 질환에 따라 치료법은 다양하다. 어지럼

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 협진으로 종합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어지럼증이 뇌 관련 신경계 질환 때문이라면 안 좋은 예후로 이어질 수 있어 원인질환을 조속히 진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지럼증 환자 100만 시대, 30~40% 이석증이지만... 뇌신경계 질환 여부도 확인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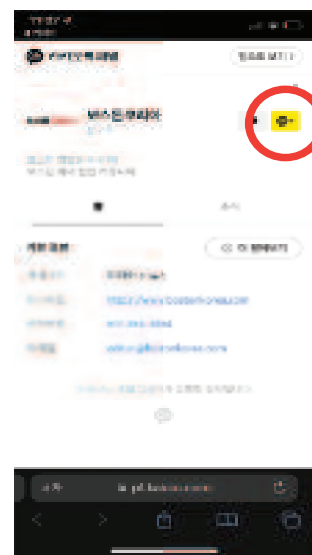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help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reate the

Art of Hanbok

Award winning photographer Bill Brett of the Boston Globe will photograph Korean culture on the steps of the MFA Boston. Wear your traditional or modern Korean attire. This photograph will be historic and we invite you to be a part of history.

Date: July 13, 2024

Time: Hallyu: Korean Wave 1 p.m. - 5 p.m. (Discount ticket code available)

Hanbok photo promptly at 3:30 p.m. on steps of MFA Boston

Locati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ssachusetts

Parking: Self-parking - Visit mfa.org for parking info and directions

RSVP: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nc.

🌐 kacl-ne.org

☎ 617-299-0294

✉ newenglandkacl@gmail.com

Prizes: For Best Hanbok - Couple, Child, Individual, and Senior

▶ Make History Together ▶ July 13, 2024 ▶ Hanbok Required ▶ Korean Art

한복의 예술



날짜: 2024년 7월 13일

시간: 한류이: 한류 오픈 오전 10시 ~ 오후 5시 (할인 티켓 코드 사용 가능)

오후 3시 30분부터 한복사진이 바로 시작됩니다. MFA 보스턴의 계단에서

위치: 465 헌팅턴 애비뉴, 보스턴, 매사추세츠

▶ Plan your visit ▶ July 13, 2024 ▶ Hallyu 1:00 PM - 5:00 PM ▶ Photo 3:30 PM ▶ Plan your visit ▶ July 13



UNDERWRITER & EXECUTIVE PRODUCER



재외동포청

EXECUTIVE PRODUCER

Insook Chang

DIRECTOR

Park Family Charity Fund • Frank & Mia Yeung • Sang Chul Shin
• Shoe City Family Dentistry

MOVIE STAR

Tae Nam • Linda Champion • Song Kim • Jenn Suh
• Hoon Heo • Boston Korean Business Association OKTA
• Martignetti Companies • CAHF & CACA (Esther & Wilson Lee) • Seoul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
• Friends of Ed Flynn • Linda White • Robert Campbell

STAR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 Young Ki Kim • Tackey Chan • Yen
& Jung J Namkung • Boston-Korean Association of Kang Won
Province (BAKP) •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 Misun Han
•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CRITIC

Julie Jun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James & Jennifer Lee •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the Republic of Korea
• Moon S Kim • Kee Hwan Lee & Soon Jung Youn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Congratulations

2024 KACL SUMMER INTERNS



IRENE SHIN

Selected as Worcester City Councilor Tim Nguyen KACL-NE Summer Intern 2024
Irene Shin is a graduating senior from Algonquin Regional High School and an incoming freshman at Northeastern University where she will be studying pharmacy in the 6-year PharmD program. She has a passionate, driven personality, and is a fanatic for any type of story! Overall, her life goal is to do her best to help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especially in the small things that matter.



SERIN HWANG

Selected as State Rep. Jackie Chen KACL-NE Summer Intern 2024
Serin Hwang is a rising junior at Boston College studying economics. When she's not in classes, she is reading, writing, or listening to music. She is excited to be taking part in KACL-NE's summer internship!



TESU HAM

Selected as Mayor Michelle Wu KACL-NE Summer Intern 2024
Tesu Ham is a rising Junior at Lincoln-Sudbury Regional High School. He is currently attempting to pursue research in aerospace engineering at Tufts. Whenever he has spare time, he enjoys filming, wrestling, and cooking. Also spending time with friends and family, of course.



JYU MOON

Selected as Worcester City Councilor Tim Nguyen KACL-NE Summer Intern 2024
Jiyu Moon is a rising junior at Pioneer Valley Chinese Immersion Charter School. She is a native speaker of English and Korean, and commands an advanced level of Chinese. Born in Boston, she has been fortunate to visit South Korea every summer to visit her grandparents and relatives. During the pandemic, she attended a public school for a year in Seoul. She is a passionate cellist, enjoys playing tennis, and engaging in community service. Through this internship, she hopes to apply her skills and help increase Korean Americans' political participation to build a stronger, more diverse community.



CHAEWON (CELINA) HWANG

Selected as Mayor Michelle Wu KACL-NE Summer Intern 2024
Celina Hwang is a rising junior at Austin Preparatory School. She is an active member of the Varsity Dance Team and is the captain of the School Math Team. Celina is very meticulous and has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in all her work. She is passionate about science and plans to major in Public Health in college. Outside of school, Celina enjoys taking pictures and videos of her daily life and editing them. In addition, every week, she teaches English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particularly those whose parents face disabilities.



ERIN HAN

Selected as State Rep. Hanna Howard KACL-NE Summer Intern 2024
Erin Han is a rising junior at Phillips Exeter Academy. Some of her interests lie in journalism, music, and creative writing. She is deeply passionate about delving into Asian-American stories, and finding moments of strength and hope in their narratives. She is a big reader, and 'Pachinko' by Min Jin Lee is a definite favorite of hers. When she is not caught up in reading or writing, she loves immersing herself in her playlists of Korean.



GAHYUN LEE

Selected as Mayor Michelle Wu KACL-NE Summer Intern 2024
Gahyun Lee is a rising junior at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She is honored to be chosen for this internship and is excited to leverage her skills and hard work to contribute meaningfully. She is interested in policy making and the betterment of marginalized communities. When she is not studying, she enjoys playing the violin, reading, and volunteering in her community. She is looking forward to new challenges and becoming the best intern she can be!



HANNAH McMILLAN

Selected as Mayor Michelle Wu KACL-NE Summer Intern 2024
Hannah McMillan is a rising sophomore attending Emerson College as a journalism major. In her free time, she is a writer for and the founder of the Gyogo Diaries, an online platform striving to share Korean-American stories. As she navigates her academic journey, she seeks to amplify voices often overlooked, shedding light on diverse perspectives. When she is not writing or reading, she is probably doing her skincare routine or running.

LOOKING FOR A SUMMER INTERNSHIP?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 invites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o apply to its Summer Internship Program. KACL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0. The KACL internship program strives to encourage Korean Americans to participate in civic engagement, exposes students to public policy careers and mentors, and helps students develop and hone their leadership skills. Visit our website at kac-ne.org.